

색과의 소통 - 생각그물



전상철, 공간 2012- 리듬, 2012

수업개요 : 우리는 두 눈을 가지고 있고 빛이 있어 아름다운 자연의 색을 볼 수 있다. 우리의 몸의 한 부분인 눈과 자연의 빛 그리고 색은 서로 소통하고 있다. 이 수업에서는 작품의 색을 감상하며 색의 조화 속에서 리듬을 찾아보고 생각그물을 펼쳐 본다.

대상연령 : 7 - 9세

키 워 드 : 색, 리듬, 어울림, 생각그물

학습주제 : 우리의 생각을 색으로 나타낼 수 있을까?

배 경 : 전상철의 작품에서는 빛과 색의 소통을 발견할 수 있다. 빛이 사물에 닿는 순간, 강렬함과 부드러움은 빛 속에 내재된 수많은 색의 리듬을 느끼게 한다. 미묘한 빛의 리듬은 많은 색들의 어울림과 내면의 느낌에 대한 성찰을 색을 통해 더욱 더 생각을

드러내고 숨기기를 반복한다. 때로는 서로 부딪히며 새로운 선과 면을 만들어 내고, 끊임없이 확산되어 수많은 화음을 내면서 서로 소통한다. 작가의 이러한 조형적 표현은 '빛과 색'을 앞세워 있는 그대로 순수한 감정을 표현한다.

수업 과정

<p>도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연과 작품의 색 감상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상철의 작품(실제 작품 or 사진)에서 먼저 전체를 감상하고 색과 형태를 감상한다. ○ 자연에서 볼 수 있는 아름다운 색을 감상한다. ○ 전상철의 작품과 앙리 마티스의 작품들을 비교해 보면서 색에 관한 이야기를 나눈다. 	
<p>전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빛깔과 친해지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빛깔들도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한다. 따뜻한 빛깔과 차가운 빛깔에 대해 이해하고 작품 속에서 찾아본다. - 크레파스나 색종이 등에서 따뜻한 느낌이 드는 빛깔과 차가운 느낌이 드는 빛깔을 골라보고 연상되는 이미지를 서로 이야기한다. ○ 선택 활동 1 : 몸과 색의 어울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5명이 한 조가 되어 무슨 색을 표현할 것인지 이야기를 나눈다. - 다양한 색의 옷을 몸에 감거나 함께 천을 뒤집어 쓰고 음악과 함께 몸짓으로 표현해 본다. ○ 선택 활동 2 : 작품을 색으로만 감상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색을 중심으로 작품 감상을 한다.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10px;"> <p>생각의 정원 <i>Garden of Thinking</i></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가의 그물에는 어떤 색깔들이 보이나요? - 작가가 다양한 색으로 그물을 만든 이유가 무엇 일까요? - 이 작품에 제목을 붙인다면 무엇이 좋을까요? - 거대한 그물로 무엇을 잡을 수 있을까요? - 만약 물고기를 잡았다면 무슨 색일까요? - 이 작품을 전시장에서 다른 곳에 설치한다면 어디가 좋을까요? </div>	<p>Tip</p> <p>빨간 신호등은 '멈추시오', 초록 신호등은 '건너시오' 등 빛깔들은 말이 없이도 이야기를 전달한다.</p>
<p>정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현하고 감상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영상을 촬영한 후 각 조의 영상을 감상하며 주제가 생각한 대로 잘 표현되었는지 몸의 움직임과 색들의 리듬에 관해 이야기 나눈다. - 색들의 리듬에서 떠오르는 이미지는 무엇인가? ○ '더 큰 생각 잇기 <i>Big Garden of Thinking</i>' 게임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ig Garden of Thinking' 게임을 하면서 주제를 폭넓게 생각해보고 서로의 생각을 공유한다. 	<p>Tip</p> <p>다양한 감정을 표현 할 수 있는 음악을 선곡하여 리듬에 어울리는 표현활동도 가능하다.</p>

이해의 정원 *Garden of Understanding*

이해의 정원 *Garden of Understanding* 은 교사들이 전시장과 학교에서 감상을 위해 제시할 수 있는 참고자료 공간입니다. 아이들에게 단순한 지식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의 정원', '지혜의 정원'으로 만들어 주세요.

▲ 연관 작품

<p>작품제목 : 붉은 색의 조화</p> <p>작가명 : 앙리 마티스(Henri Matisse)</p> <p>- "내가 초록색을 칠했다고 해서 그것이 곧 잔디가 아니야, 내가 파란색을 칠했다고 해서 그것이 곧 하늘을 의미하지는 않지, 나의 모든 색깔은 다 같이 모여서 노래해, 마치 음악의 화음처럼."</p> <p>- 야수파(fauvisme)인 마티스는 어려서부터 색에 관심이 많았고 보이는 대로 똑같이 칠하는 것보다는 자신의 느낌을 원색으로 표현했다. 다른 물감을 섞지 않고 노랑, 빨강, 파랑 등을 그대로 써서 그림이 강하게 보인다.</p>	<p>작품제목 : 달팽이</p> <p>작가명 : 앙리 마티스(Henri Matisse)</p> <p>- 마티스는 말년에 건강상의 이유로 붓을 잡을 수 없게 되자 색종이와 가위를 이용해 작품을 완성한다. 작품 자체만 감상하였을 때는 작품의 제목인 달팽이가 떠오르지 않는다. 하지만 작품 제목을 알고 다시 바라보았을 때, 달팽이의 표현에 감탄하게 된다. 다양한 색의 조각으로 달팽이를 표현하였고 '색을 먹고 있는 달팽이'의 모습이기도 하다.</p>
--	--

더 큰 생각 잇기 *Big Garden of Thinking*



초등학교 시절에 다른 아이들은 나에게 이야기를 지어 달라고 부탁하기 일쑤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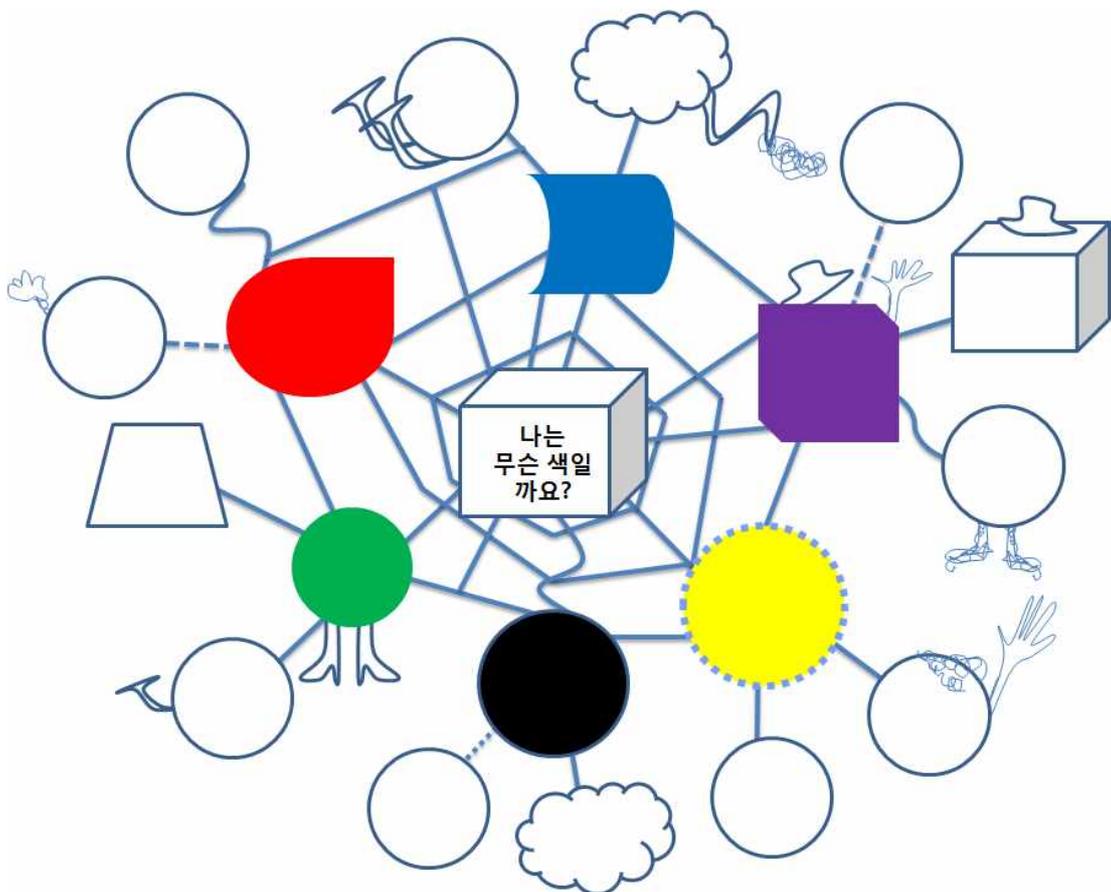
그러면 나는 대개 이런 식으로 시작하는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는 아무 생각 없이 문을 열었다가 너무 놀라서 입을 아말지 못했어.....>

그러다가 그것들은 하나의 게임이 되었다.

사람들에게 어떤 문제를 제기하고 뜻밖의 해법을 찾아내게 하는 게임 말이다.

베르나르 베르베르 ‘나무’ 중에서...



각 색들에서 떠오르는 생각들을 펼쳐보자!